

韓電 李宗勳 社長 초청 간담회 開催

『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지난 9月 17日 무역회관 51층에서 韓國電力公社 李宗勳 사장을 초청, 업계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업계 및 단체 대표등 29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중전업계 대표들은 그동안 韓電에서 우리업계를 위하여 각종 지원활동을 해준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 및 절의된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건의 1. 권용득 / 대한전기기사협회 회장】

○ 통신공사의 경우 24V에서도 감전사고가 있다는 명목하에 통신기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작업을 허용하고 내부부의 인가를 요구하는 준공필 전에 반드시 검사필 의무를 두고 있는데 전기의 경우 220V로 승압이 되어 감전사고등의 우려가 높음에도 안전검사 없이 송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답 변 (이종훈 사장)

시설자체의 미비로 감전사고가 나는 경우는 드물며 한전에서는 현재 일반 수용가에 24시간 이내 송전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기사의 천익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 편리에 역점을 두어 국민의 고통을 덜어 주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의 2. 김동상 / 이천전기공업(주) 부사장】

건설공사에는 기성금이나 선금금 제도가 있는데 중전기 같은 대형기자재에 이런 제도가 없는 것은 문제입니다. 중전기기는 원자재 비중이 크고 물품의 제작기간이 길어 자금사정이 어려운 업계로서는 큰 애로가 아닐수 없습니다.

기성금 지급은 '92년도 부터 중단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전에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전업계의 어려움을 각별히 배려하시어 기성금 지급을 인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와 관련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전과 업계가 함께 모여 연구·검토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며 우리업계는 어떤 형태로든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답 변 (이종훈 사장)

이문제에 대해서는 한전 자금 형편의 어려움과 채권확보 방법, 제도 자체를 개발해야 하는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현품이 발주자에게 바로 들어 갈 수 있고 기성고 자체의 자산적 가치가 인정되어 가능하지만 중전기 기자재의 경우는 그 특성상 완성품이 되지않은 상태여서 채권 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관행이 있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 보전이 가능하다면 공정거래를 의해 제도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계와 공동 연구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건의 3. 이영태 / (주)광명전기 사장】

이번 한전에서 수립한 『중소기업 기술지원 계획』 중에서 자동화 설계 용역 자금이나 인력지원등 시설비 일부에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답 변 (이종훈 사장)

『중소기업 기술지원 계획』에는 자동화·정보화 기술개발에 100억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비등에 대한 지원은 기술개발을 위한 R&D 차원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의 4. 전경호 / 선도전기(주) 사장】

부품에 대한 국산화시 부품시험만으로 완제품 시험을 면제해 주실것과 국산화 제품에 대한 구매시 개발비, 연구비등을 일정기관 구매가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답 변 (이종훈 사장)

외국의 경우 개발비를 인정하여 구매함으로서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도 국산품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럴 경우 국산화가 급진전되어 수입도 많이 감소하게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산회계법상의 원가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노력해 보겠지만 상공자원부에서 관련법에 반영해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간 협의에 의한

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의원 입법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답변 / 이우공 전기공업과장〉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회계 관련 법 규정이 재무부 소관 사항이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대부분 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의원입법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건의 5. 김인환 / 효성중공업(주) 사장】

재무회계 규정의 원가계산 범주에서 개발비등의 보전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인건비, 공급리등의 실제 인상율이 개발 투자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산화시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성금 제도도 새로운 것이 아니고 과거 시행되어 오던 것을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관납시 어음 지급하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 답 변 (이종훈 사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계 도움을 위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답변 / 한전 손봉업 자재본부장〉

과거에도 기성금 제도는 없었으며 한때 한전자금 사정 호전시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업계를 위해 제도를 보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 6. 김준철 / 국제전기(주) 사장】

현재 국제전기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소요되는 인버터를 개발, 해외시험과 기술제휴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있는데 최근 지역마찰등으로 원자력발전 중장기 대책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한전에서 계획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획과 진행계획은 변동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이종훈 사장)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동안 지역주민에 대한 불만 해소 노력을 많이 기

올여 2006년까지 약 6기 정도의 추가 준공은 가능합니다.

2006년까지 매년 1기 정도 준공해 나갈 예정으로 그때까지의 부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원자력은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계속 추진될 것입니다.

【건의 7. 양규현 / 한양전공(주) 사장】

기기와 시방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공급업체의 애로가 많습니다.

통일된 기술기준과 적용시기등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이종훈 사장)

기술수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아 부분적으로 상이한 점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기술은 급속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행정 규정이 이를 그때 그때 뒷바침 해주고 있지 못해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사무자동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건의 8. 유영철 / 현대중전기(주) 전무】

몇일전 전기진흥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GATT 정부조달협정 가입 추진에 따라 한전이 양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우리 중전업체는 국제경쟁력이 뒤져 큰 피해를 볼 것입니다.

따라서, 한전에서도 국내 업체 보호책 마련을 위한 비관세 장벽등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내 개발시험 절차를 외국업체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외국제품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는 예가 있습니다.

▣ 답 변 (이종훈 사장)

GATT 정부조달협정가입 문제는 정부에서 다룰 문제입니다만 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또다른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응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는 개방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쌀시장 개방만큼이나 어려운 입장입니다. 한전으로서 는 우리업체 보호를 위해 당연히 같은 조건의 시험을 할 것이며 국내 업체에 불리하게 적용하지

는 않을 것입니다.

〈보조답변 / 한전 심창생 기술본부장〉

현재 외국제품에 대한 면제는 이미 이 제품들이 개발시험을 거쳐 사용실적이 있기 때문에 면제하는 것임을 이해 바랍니다.

【건의 9. 한두석 / 동미전기공업(주) 사장】

우리나라 중전기 업체의 70~80%가 경인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인지역에 시험설비가 없어 창원에 있는 전기연구소에서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거리가 멀어 시간, 인력, 예산등 애로가 많습니다.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인지역에 소규모 용량의 기기라도 시험할 수 있는 시험소 설치가 시급합니다.

사장님께 중전업계 지원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답 변 (이종훈 사장)

'91년 이후 생산기술 개발과제에 지원된 1,000억원의 자금중 여유분을 금년에 추가로 지원하면서 시험장 설치비로 일부를 할애할 예정이었으나만 업계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어 이번 자금은 기술개발에 투입하고 별도 자금을 마련, 의왕시 포일리에 간단한 단락시험장을 구축할 생각입니다. 전기연구소와의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건의 10. 임인주 / 진흥회 상근부회장】

우리 중전기 산업은 내수관망 위주로 성장한 관계로 수출 경쟁력이 미흡하고 국제화에도 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GATT 정부조달협정 가입 추진으로 머지 않아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며 국제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공업진흥회에서는 우리 중전기 산업의 국제화 및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해 상공자원부가 주최하고 업체를 대표하여 진흥회가 주관하는 제 1회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을 '94. 7월 개최기로 결정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유사업종인 『전자전』은 '69년부터 『기계전』은 '71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만 중전업계의 국제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국제행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기관, 단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업계의 대 수요처인 한국전력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업계에서도 전시회에 『한국전력관』 설치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선도적 입장에서 이 전시회에 꼭 참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답 변 (이종훈 사장)

-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참여하겠습니다.
- 그러나, 참가 규모등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한전이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자칫 업계의 홍보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느니 만큼 중전기 업계 위주의 전시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한전은 업계 지원 차원에서 반드시 참여하겠습니다.

[참석자 명단]

구 분	소 속	지 위	성 명
한전측 (3)	한국전력공사 · ·	사장 기술본부장 자재본부장	이종훈 심창생 손봉업
정부측 (1)	상공자원부	전기공업과장	이우공
단체 (10)	한국전기공업진흥회 · 대한전기협회 대한전기기사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한국전지공업협동조합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	회장 상근부회장 사무국장 회장 이사장 전무장 이사장 이사장	이희종 임인주 이수진 권용득 오재현 이형종 김경만 최백규 노상국 이갑순
업계 (15)	동미전기공업(주) 대성전선(주) 신아전기공업(주) 이천전기공업(주) 금성전선(주) (주)광명전기 효성중공업(주) 현대중전기(주) 일진전기공업(주) 대한전선(주) 한양전선(주) 국제전기(주) 선도전기(주) 계양전기(주) 신한전기공업(주)	사장 사장 사장 부사장 상무장 사장 사장 전무장 사장 전무장 사장 사장 사장 사장 사장	한두석 양시백 조준영 김동상 이수홍 이영태 김인환 유영철 김신탁 김광배 양규현 김준철 전경호 박희석 박길상